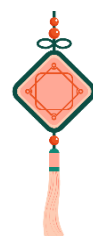


# 東洋英和女学院大学



## 韓国語レシテーションコンテスト



共催：東洋英和女学院大学

高校初級韓国語検定開発研究会

東洋英和女学院大学は、語学教育や国際理解教育などに力を入れており、多くの高校生が韓国語の朗読を通じて、自己表現力を発揮する機会になることを願って、本コンテストを高校初級韓国語検定開発研究会と共催でおこないます。

■実施方法 オンラインによる

■応募資格 女子高校生

■応募者レベル 初級から中級程度  
高校生用韓国語検定(初級)試験合格者(レベルⅠ・Ⅱ) ハングル検定試験4～5級程度 TOPIKⅠ取得者  
その他検定は取得していないが、独学で韓国語を勉強している生徒

■審査方法  
課題文①または②のいずれかの朗読が録画された動画を審査します。

■応募方法  
課題文①または②を朗読している全身を撮影した動画データを以下のサイトまたはQRコードから、応募フォームを使って提出してください。

<https://forms.gle/bdxuzE83Zb8QW6Wg8>



※動画データはmp4形式、ファイルサイズは200MB以下のものに限りです。  
それ以外でご応募いただいても審査の対象にはなりませんのでご注意ください。

(注意事項)

- ・フォームのご提出には、Googleアカウントが必要になります。
- ・Googleアカウントをお持ちでない場合でも、メールでのご応募はお受付いたしかねます。
- ・システム上の理由から恐れ入りますが、高校単位でのお申込みではなく個人からのお申込み限定させていただきます。参加者ご本人のGoogleアカウントよりご応募ください。
- ・収集した個人情報は、レシテーションコンテスト及び大学広報活動で必要とされる募集及びそれに付随する作業の範囲に限り使用いたします。

■コンテスト日程

応募期間：2022年9月1日(木)10:00～9月30日(金)15:00【終了】

二次募集期間：2022年10月4日(火)10:00～10月11日(火)23:59

結果発表：2022年10月20日(木)10:00

## ■審査結果発表方法

本人宛に通知するとともに、HP でも公表します。

### 表彰

東洋英和女学院大学学長賞 副賞：図書カード1万5千円分

銀賞 副賞：図書カード1万円分

銅賞 副賞：図書カード5千円分

高校初級韓国語検定開発研究会賞

## ■課題文

### 課題文① 내가 소우주이다

한국어 글자는 ‘한글’이고 한국 국기는 ‘태극기’이다. ‘아리랑’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이고 ‘태권도’는 대표적인 운동이다. ‘한복’은 전통 의상이고 옛날 가옥은 주로 초가집이며 ‘온돌방’으로 겨울 추위를 이겨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그 관심은 2000(이천)년 전후부터 K-POP(케이팝)이나 K-DRAMA(케이드라마)가 끌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중문화 인기는 흥과 재미와 선한 메시지가 필수이다.

가장 최근에 인기그룹 방탄소년단(BTS) 노래 ‘소우주’ 가사를 보면 청소년에게 희망을 준다. “어두운 밤 외로워 마, / 별처럼 우린 그 자체로 빛나” 즉 내가 소우주이며 자신의 소중함을 전한다. 서바이벌 게임으로 히트친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돈이 제일이라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코믹하게 그려서, 자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준다. 이런 한국대중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김나현)

### 課題文② 아리랑이란 ?

‘아리랑’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이다. 가사 내용이 대체로 슬프다. 지역마다 많은 버전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경기도 아리랑’을 부른다. ‘아리랑’의 어원이나 의미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첫째, ‘아리랑’은 노동요였다. 이 노래는 힘든 노동을 할 때 한 사람이 부르면 모두가 따라 불렀고,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르다가 대대손손 부르게 됐다는 것이다.

둘째, ‘아리랑’이 우리 민족의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된 계기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현실을 이겨내면 행복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설이다.

조선시대 시골에 착하고 예쁜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알짜’ 혹은 ‘알’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 처녀 옆집에 잘생긴 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그 총각도 ‘알’이라고 불렀다. 사랑하게 된 두 남녀는 서로 양숙인 집안의 자식들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옆 마을로 가려면 수많은 고개를 넘어야 했다.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친구들이 드디어 “알이랑 손잡고 고개를 넘어갔다” 라고 좋아했다. “알이랑 알알이요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라는 등의 가사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설이다. (김나현 편집)

## ■お問い合わせ先

東洋英和女学院大学「韓国語レシテーションコンテスト事務局」宛

メール : [recitation@toyoeiwa.ac.jp](mailto:recitation@toyoeiwa.ac.jp)